

“수능 부담 줄이자” vs “이공계 홀대”

기하·과학II 수능서 빠질까 교육부 제외 방침 학계 반발 이공계 기초학력 저하 우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5일)을 100일여 앞둔 지난 6일 광주시 남구 대성여고에서 3학년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교육부가 기하와 과학II(물리II·화학II·생물II·지구과학II)를 수능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학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작업과 연동해 수험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학습부담 감축을 위한 방안이지만 기초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수능 과목구조를 개편하는 등 2022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새 대입제도를 이달 발표한다. 국가교육회의가 수능전형(정시모집)을 늘리라고 권고하면서 '전형 간 비율'을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진 반면 수학·과학 등 '수능과목' 쪽으로 논란의 불씨가 옮겨간 모양새다.

현 중3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한다. 공식적으로는 문·이과의 구분이 없어진다.

교육부는 이런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려 수능 수학과 계열 구분 없이 '통합형 공통 과목'과 '필수선택과목' 등 2개 과목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는 이공계열에 진학할 학생의 경우

주로 '수학 가형', 인문사회계열 희망자는 주로 '수학 나형'을 치르는데 2022학년도부터는 모든 학생이 공통과목과 필수선택과목(확률과 통계 또는 미적분)을 치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20학년도까지 수학 가형에 포함되는 기하는 필수선택과목에서 빠진다. 기존 8과목이던 과학탐구영역 선택과목 가운데서도 과학II 4과목이 빠진다.

수능은 고교 2학년 수준의 일반선택과목에서 출제되는데 기하와 과학II는 새 교육과정에서 주로 고교 3학년 때 배우는 심화과목(진로선택과목)이다.

진로 탐색을 위한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하고 수험 부담을 줄이려면 기하와 과학II를 수능에서 빼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학계는 강력하게 반발한다. 인문사회계·이공계 진학생에게 요구되는 대학 수학 능력에 엄연히 차이가 있는데 출제범위를 줄이는 것만은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학계는 특히 이공계 진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수학회 등 11개 수학 관련 학회로 구성된 한국수학관련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2022학년도 수능을 현재처럼 가형과 나형으로 분리해야 하며 이공계열 학생이 치르는 시험 영역에 '기하'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조선대, 베트남 대학과 교육활동 협력

조선대학교(총장 강동완)는 최근 베트남 탄도대학교와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학문과 우수 인력을 활용하고, 지속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협약체결에 따라 두 대학은 ▲교육활동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며 교직원 상호 방문을 위해 협의하고 편의 제공 ▲양국 간의 상호 이해 증진과 학생간의 상호 교류를 위한 다양한 편의 제공 ▲학생 교류 프로그램(한국어학 과정 및 기타과정) 등 다양한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베트남 탄도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협약식은 조선대 임병춘 국제협력팀장과 탄도대학교 응오 쉰 하(NGO XUAN HA) 총장을 비롯한 대학관계자 및 학생

200여 명이 참석했다. 탄도대학교 응오 쉰 하(NGO XUAN HA) 총장은 행사에서 "조선대의 첨단 과학과 기술의 토대 위에 양 대학의 상호 발전과 우수인력 양성을 목표로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며 "협약을 계기로 탄도대 학생이 조선대에서 한국의 과학기술과 한국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탄도대 교직원들도 한국의 기술 교육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대 임병춘 팀장은 "베트남 대학과 다각적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 축산직 합격자 18명 중 16명 전남대 출신

전남도 동물자원학부가 올해 전남도 축산직 공무원 전체 합격자 18명 가운데 16명을 배출했다. 또 농진청 연구직 공무원도 6명 중 2명이 전남대 동물자원학과와 대학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명실상부한 공무원 배출의 요량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동물자원학부가 입학 초년생부터 자기의 이해를 통한 진로설계에 관심을 갖게 하고, 특히 학부 차원에서 다양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진구복 교수(동물자원학부장)는 "동물자원학부는 지난 수년간 계속해서 축산직 공무원과 농진청 연구직, 축산물 품질평가원 등에서 우수한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학부교수들의 충실한 전공교육과 학생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는 동물자원학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토종 전남대생' 김형상 박사가 국립 환경대 교수 공채에 최종합격하기도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대학교 '패션샵마스터 아카데미 국비훈련과정 1기' 참가자들이 최근 열린 수료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호남대 제공>

'패션 전문가'로 새출발... 호남대 과정 수료식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일자리사업단(단장 김지연)이 최근 '패션샵마스터 아카데미 국비훈련과정 1기' 수료식을 열었다. 호남대와 광주시 서구청과 함께 진행한 '패션샵마스터 아카데미 국비훈련과정 1기'는 패션관련 판매전문가 양성과정으로써 패션유통서비스업에 취업을 준비하는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지역소외계층 취업준비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25일부터 7월26일까지 진행됐다.

수료식에는 호남대 패션디자인학과 윤점순 교수, 광주시 서구청 이호준 국장, 배석 계장, 수료생 김수희 씨 등 총 35명이 참여했다. 향후 수료생들에게는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등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패션샵마스터 아카데미 국비훈련과정'은 패션샵매니저 양성을 위한 직무소양, 패션전문지식, 패션마케팅, 매장VMD 및 홍보기법, 고객관계관리 등의 전문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호남대 패션디자인학과 교수진을 비롯한, 광주대, 목포대, 전남대 교수진과 세정 아울렛, 광주아울렛 등 지역의 주요패션유통 실무자들이 강의진으로 참여해 현장실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진행됐다. 2018년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년째 서구청과 '패션샵마스터 아카데미 국비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호남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는 지역의 패션산업에 필요한 취업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전문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놀이가 교육...광주교육청 '놀이지원단' 출범

광주시교육청 '빛고를유아놀이지원단'이 지난 7일 출범해 활동에 들어갔다. 빛고를유아놀이지원단은 유아들이 즐거운 놀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 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됐다. 오는 2020년 2월까지 활동한다. 지원단은 광주 공·사립 유치원 원장, 원감, 교사 등 44명으로 꾸려졌다. 지원단은 앞으로 학부모·교직원의 유아·놀이중심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놀이프로그램 만들기, 놀이프로그램 자료제작, 학부모와 교원 대상 컨설팅, 학부모 및 교원 대상 강연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시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재미숙 장학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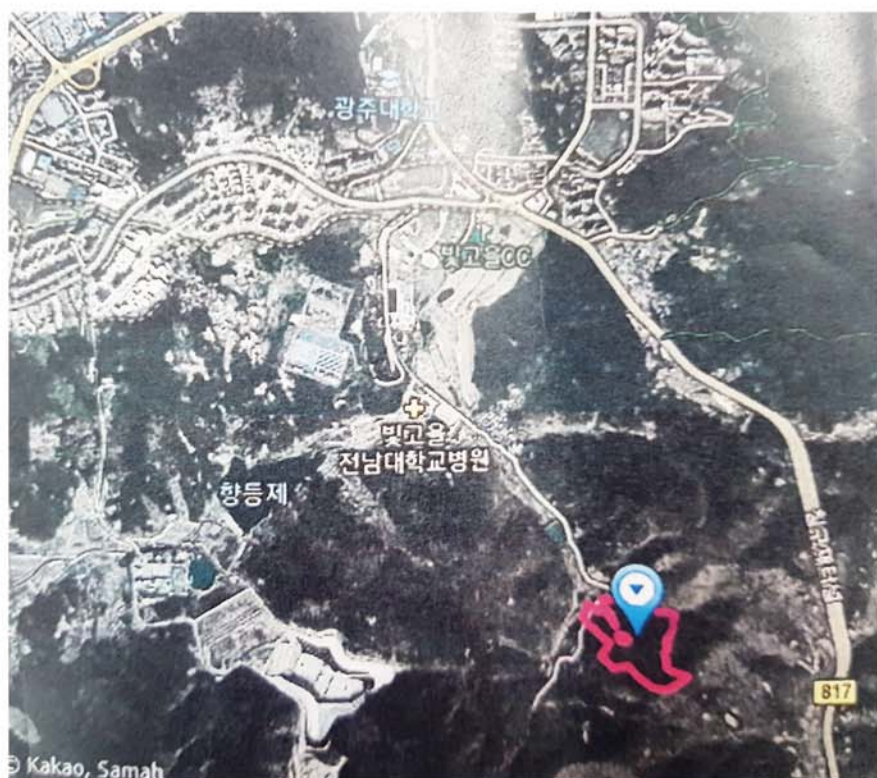
광은 "유아의 건전한 성장 및 행복감 증진을 위해 유아·놀이 중심으로 유아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유치원 교육공동체인 학부모·교직원들의 마인드 제고 및 역량강화가 중요한 시기에 출범하는 '빛고를유아놀이지원단'이 현장의 유아·놀이중심교육을 선도하고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 5월4일 '어린이 놀이 현장'을 선포하며 어린이의 놀 권리와 놀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린이 놀이 관련 시·도교육청 10대 공동정책'을 마련해 안전한 놀이 공간 확보와 다양한 놀이 경험 제공에 뜻을 모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학생교육문화회관 9월부터 초등생 토요일교실 운영

광주시교육청 직속기관인 학생교육문화회관은 다음달 8일부터 12월 1일까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한 토요일교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배드민턴, 탁구, 농구, 공예, 바둑, 보드게임, 음악줄넘기, 웨이트댄스, 우쿨렐레, 마술, 미술, 한자, 하모니카 강좌

등 총 16개 강좌가 마련됐다. 수강료는 무료다. 강좌 신청은 8월16일 오전 10시부터 9월4일 오후 5시까지. 선착순 인터넷 접수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lib.gen.go.kr)를 참조하면 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